

* 지난주 강단제목 :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학 1:1-7, 고후 13:5)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임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안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서교독	50. 시편 116편 / 인도자와 회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8)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도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2-15)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 다같이
증보의 기도	(1부) 최철규 장로 (2부) 이은숙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39:21-23(구약 61쪽), 데살로니가전서 5:23-24(신약 333쪽) / 인도자
찬양	(1부) 생명의 주 찬양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시온찬양대 (현장)

영과 혼과 육을 흠 없이 보존해야 할, 7포인트 제자들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전서-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예수 전하세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반복)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이미자 장로 (2부) 김금남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임예진 권사 (오후) 고진순 권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장길순 권사

(오후) 김승훈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나의 237(유럽)
설교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태영아·유치부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목) 박범서 목사

(화) 이현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령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오늘 주일2부예배(오전 11시) 직후 4층 당회실에서 참사랑교회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장학위원 전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주 주일(8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램네티부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예배 후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은 없습니다.)
3. 복음요절 압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집에 도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일오전예배, 수요일오후예배, 금요일아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옵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네티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6)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윤돈 담임목사 : 8.25 237화요제자훈련 - 덕평 RUTC
 - 2) 이현규 목사 : 8.24~28 교역자 휴가
2.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3.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요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네티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라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라니타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네티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취미그림교과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가,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탐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237화요제자훈련이 8월 25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9월 1일(화)부터 2일(수)까지 ‘세계교회가 놓친 것 회복(행11:19-30)’을 주제로 뉴저지 서밋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4. 미주 영산업인수련회가 9월 2일(수)부터 3일(목)까지 ‘All-in, All-out, All-change(행12:1-25)’를 주제로 뉴저지 서밋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5.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이 9월 8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6. 초등신학원 및 청소년신학원 2026년 가을학기가 등록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담당교역자)
 1) 등록기간 : 9월 11일(금)까지. 2) 수업기간 : 9월 12일(토) ~ 12월 5일(토) / 12주간.
 3) 등록현금 : 15만원. (재수강 15만원 / 초신예비반 7.5만원 / 청신청강 7.5만원)
 4) 등록사이트 : WEEA.KR

8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램넌트부서연합예배(2) / 제29차 2026세계램넌트대회(4~7, 대구 EXCO)
2주차	장학생 선발공고(9) / PMAW수련회(9~11, 덕평 RUTC), 청소년 777합숙(12~15), 제50차 사랑부램넌트대회(12~14), 세계청년수련회(15)
3주차	RM부모학교(17), 청소년합숙(중·고등, 17~20)
4주차	장학위원회모임(23) / 237화요제자훈련(25, 덕평 RUTC), 램넌트데이(29)
5주차	하반기 장학금수여식, 램넌트부서연합예배(30) / 북미주 산업인대회(9.1-2, 뉴저지 서밋장로교회), 미주 영산업인수련회(9.2~3)

8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현금위원	(위원장) 김현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6층) 김금남 최진희
안내위원	(위원장) 김경희A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인수집사 전원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장자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해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원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엽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안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정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화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매명자 산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종화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정심 임근일 최철규 장영균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운진 강현자 장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강공이 김희권 김영순 호민수 김나경 김경애 손병순-박정수 김순자 최재경 김춘례 김재과-장소녀 이영순 박인자 임영순 정향란 이순근 김주영 박서이 김정연 윤순옥 임소순 나경철-신현식 박숙자 심상화 정민호-이서은 전은정 한영화 조성균-김갑태 박난순 김미자 김일호 홍명숙 도정호 이상구-이정미 임혜미 최일숙 고경훈 정수환 정예승 최영국-김윤지 여 명 김지수 황혜주 임혜연 이민형 최송화 유승환-최이현 박희영 김지후-이현주 김소라 이연균 김명철 장유미 임경미 김승훈-김혜인 김태운 이민수-김숙희 유영석 김창균-임예진 이효숙 조부영 양은숙 김영희 채송아 안선희 방주는 장혁균 정예진 배준서 안예근 무명15
십 일 조	유경선 정민호-이서은 유충현-강공이 김순자 손병순-박정수 소귀영-강영호 이재은 손상현 홍명숙 배준서 고경훈 조현지 김성재-윤태자 이이연 정연규-이은숙 김순호 나경철-신현식 이수용-이미자 손혜옥 임혜연 김경희 홍경아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김성재-윤태자 박학규 김미자 양정심 박진수 김애경 박서이 정민호-이서은 최송화 권혁복 이계옥 방주는 김지후-이현주 이은숙 박영인 유경형-리종화 박동영-최진희 최신혜 홍경아
심방헌금	지복순 임상식 임민재
맥주감사	송영희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박범사-김진아 임영순 박서이 방주는 정수환 유승범 주은경 정연규-이은숙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이수용-이미자 조부영 박동영-최진희 박지영 임혜연 김경희
치유센터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방주는 (*2026년도 총계 432,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현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이현규-김수진 박서이 장영호-소성국 임영순 임혜미 정수환 유승범 주은경 방주는 김순호 정연규-이은숙 김승훈-김혜인 김태운 이수용-이미자 박동영-최진희 손혜옥 임혜연
장학헌금	정윤돈 김원일-전인숙 박서이 정수환 방주는 유승범 주은경 정연규-이은숙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김창균-임예진 박동영-최진희
어학연수	정수환
RUTC헌금	방주는 정수환 정연규-이은숙 김승훈-김혜인 이수용-이미자 박동영-최진희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8. 12. ~ 2026. 8. 18.)

현당헌금 (2026년도 합계)	85,301,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68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9,525,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557,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9,000,000엔 (한화 4,130,800,000원 / 100엔환율=92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장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흥기 문길준 김갑래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남호정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치현 박현우 김장삼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식 윤수연 김지유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재 고정호 고정협 스모도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원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진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윤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는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대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삼한결 목사 | 총무: 양영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정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정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은옥</u> 임선규 김태운 김근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엽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정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조동범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u>이 명</u>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윤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도연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u>김영진</u>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u> 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희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u>장영균</u>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정B 유정빈
	㉑가락 (정영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u>이균재</u> 이순근 이수앤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삼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심승언 정향란 이민수 김수화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u>김선옥</u>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복음으로 여는 학개-

학개 1:1-7, 고린도후서 13:5

들어가는 말씀

지난 주간 WRC(세계 램프트 대회)가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날 101세이신 장로님께서 대표기도를 하러 나오신 장면이다. 나는 연세가 많으시니 휠체어를 타시거나 지팡이를 짚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주 힘찬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늘 100세, 12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았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겨우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며 이제 막 혼란받아 전도하고 쓰임 받을 만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저분들이 더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교회에 힘을 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된다. 모세도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3:16). 나의 육신적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AI와 바이오 과학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건강하게 장수하며 성경의 인물들처럼 영원한 쓰임을 받아야 한다. 또 하나 감동적이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혹은 유치원생) 꼬마 아이가 나와서 자신이 직접 쓴 기도문을 낭독한 일이다. 나는 처음엔 그저 이번 WRC의 콘셉트가 아이들을 내세우는 분위기인 줄 알았다. 그래서 기도문도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써준 것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평소엔 어린이집 구석에 앉아서 혼자 그렇게 깊이 기도를 한다고 했다. 그 꼬마 아이가 스스로 써 내려간 기도문이었다. 그것을 보며 다윗과 요셉,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시대를 살릴 인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예배 시간에 잘고 말쑥하며, 학교에 가서도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다가 선생님께 욕이나 먹고 허허덕거리는 수준으로는 결코 세상을 살릴 수 없다. 나도 어렸을 적 눈치가 빨랐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의 한 살 많은 형(김건재)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갔다. 당시 나는 현금으로 어머니께 10원짜리를 받아 냈는데, 전도해 온 형은 돈이 없어서 현금을 못 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머니께 20원을 달라고 해서 그 형과 10원씩 나누어 함께 현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성령충만함을 받은 나이 어리더라도 앓을 자리, 설 자리, 위-아래-좌우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 나이가 80, 90이 되어서도 조그만 일에 상처받았다, 섭섭하네 하며 시험에 드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품고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다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미래의 영적 서밋, 전도자, 램프트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내 실력이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영적인 정체성부터 확실히 점검하고 확증해야 한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으면 흔히 "하늘에 계십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마음속, 내 삶의 한가운데, 나의 중심에 확고히 계시어야 한다. 그래야만 전도와 복음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구원받았음에도 역지로 교회에 끌려오듯 겨우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버려진 자와 다름없다. 바울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강하게 책망한 것은 진짜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반어법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당당한 삶을 살라는 간절한 호소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자존심이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어릴 적 내 친구 중 한 명은 커서 검사가 되었다. 공부 좀 잘하고 세상에서 조금 출세했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학창 시절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친구들도 가까워서 지켜보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어서, 오히려 내가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곤 했다. 그들에게 배울 것은 별로 없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감추어진 영적 보화(골2:3)가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란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지혜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내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어찌 나의 길을 모르시고 인도하지 못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산업과 후대를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끄실 줄 굳게 믿으라.

오늘 본문인 학개서로 들어가기 전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미래 전도의 6가지 단어(LVTNPO)를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어떤 이들은 교단에서 자꾸 새로운 영어 단어들을 만들어 낸다고 불평하지만, 이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 이름을 붙이듯 이는 필요한 것이다.

1) Leverage(영적 지렛대) :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보좌의 능력이다. 참된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은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철저히 미리 분석하고 성공과 실패의 모든 시나리오를 세운다.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영적 지렛대를 사용하여 세상을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며 나아가야 한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작은 청초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이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다.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임에도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겸손하게 영적인 지렛대를 활용하라. 잘못된 세상의 주식 투자나 빚투(빚내서 투자) 같은 거저된 레버리지에 속지 말라.

2) Vessel(영적 그릇) : 학개 선지자는 모두가 포기했던 무너진 성전건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릇이었다. 무조건

큰 그릇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간장 종지나 국그릇처럼 쓰임새에 맞게 준비된 적합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적합한 그릇이 중요하지 무조건 큰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투덜대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만이 훗날 세 계적인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그릇이 되어야 한다. 세 월이 지나면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역전된다. 그런 아픔은 사실 아무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참된 실력과 복음으로 이기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 을 받을 것인데, 이를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그릇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 나는 집안이 이렇다, 이것이 문제다, 나는 열 등하다, 너무 힘들다"라며 불평하고 살면 응답이 온다. 성경 응답이 온다 해도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지금 당장 성공하기를 바란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누리고, 지금 내 영적 그릇을 준비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응답은 자연스 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리 정복하는 삶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는 다 허상이다. 우리는 실상을 보아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히11:1). 그것을 계속 바라보며 확신을 갖는 사람에게 결국 응답이 오는 것이다. 부모님이 부족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나라와 민족이 부족해 보여도 감사할 것이 너무 나도 많다. 어쩌면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죽집게처럼 찾아내어 스스로 저주를 만드는가. 그것은 철저히 마귀에게 속고 있 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상황을 보라.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라.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기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매일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찾는다. 그런 인간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이 왜 이래?"라며 불평거리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런 불신앙의 영적 상태를 버 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누리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축복으로 변한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두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데 돈도 많고, 문제도 없고, 건강하며, 자식도 잘되고 사업도 잘된다고 치자.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모 든 것이 영통하다면,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다. 그래 봤자 그 사람도 결국 죽는다. 그 대단한 사업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 봤자 늙고 병든다. 반드시 한계의 시간표가 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 도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굳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 지 않아도 된다. 기도로 살아가는 품으로 된다. 나역 시간이 날 때마다 지구반을 하루에 30바퀴씩 돌리면서 세계 복음화 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영적으로 돌리지만 해도, 그 간절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세계 복음화에 동참 하는 것이다.

3) Transmission(전달) :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바르게 전달한 훌륭한 전도자였다.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 도의 완전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영적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4) Nobody(아무도 없는 곳) : 성전재건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절망적인 현상이었다. 여러분의 현장에 도 진실로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라도 내가 먼저 영적으로 빛과 향기가 되어 참된 행복 과 응답을 누리야만 그 무너진 현장을 살릴 수 있다.

5) Platform(플랫폼) : 모든 사람과 자원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중 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응답을 이끌어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모이는 영적 플랫폼 역할을 감당한다.

6) Outsourcing(아웃소싱) : 참된 성전재건은 내 안에 먼저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이것을 237개 나라와 5천 종 족에게 효율적으로 위탁하고 전달하는 영적 아웃소싱이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하청업체들과 기술을 공 유하고 상생(Win-Win)하며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간다. 우리 역시 1만 3천 명이 모이는 WRC 같은 거대한 집회를 치를 때, 비효율적으로 고생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시스템을 아웃소싱하여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혜 롭게 사역을 분담해야 한다.

1.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꾸지람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이사야, 예레미야 등), 포로 기간(다니엘, 에스겔 등),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 성 전 재건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 이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활동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고국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현지인들의 거센 핍박과 핑 계 속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해 버렸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의 길을 가 는 자만이 쓰임 받는다. 90%의 사람들은 조곰만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하겠다"며 온갖 핑계를 대고 또 기화한다. 끝까지 완주하는 10%의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져 침실을 박고서도 다시 일어나 스노우보드를 탄다. 신앙생활과 직장 생활도 1~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1) 영적 지도자들의 네태함 꾸지람 학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먼저 꾸짖 으신다.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에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은 하나님께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적적으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작은 어려움과 방해가 닥치자 사명을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렸다.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들(목사, 장로, 사역자)과 세상의 리더(대통령, 기업가)들이 영적 사명을 회상하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

2) 핑계 대는 백성들을 향한 책망 백성들 또한 학개 1장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며 일괄한 핑계만 대고 있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며 평생 핑계만 대다가 허송세월하는 인생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길거리를 지 나기도 돈 버는 길이 보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새벽부터 치열하게 행동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 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히려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셨다. 여 러분,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좋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말씀 전파만큼은 예외가 없 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며 전도와 선교, 다락방과 지교회의 사명을 핑계 대고 미룰 때

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집을 꾸미고 먹고사는 일에는 피 터치게 열심을 낸다.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된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여 해야 한다. 당장 급한 일은 빨리 처리해 버리고 정말로 내 평생과 영원을 위해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하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청년 수련회에서든 말씀하셨듯,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완전히 준비해야 한다. 지금 영어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려운 인생에 큰 한계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램프턴 어학연수를 위해 다시 현금을 모아야 한다. WRC가 끝났으니 이제 어학연수 현금이 모이는 대로 후대들을 외국으로 보낼 것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직 영어로만 훈련받는 곳에 보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보내준다고 해도 억지로 가지 말라. 엄마 아빠가 등 떠밀어서 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한다. 신앙이든 공부든 강제로 하는 것은 평생 내 인생에 마이너스일 뿐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일어나서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 학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니와 너희가 이 때에 관변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일침을 가하신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무너져 내리는데, 자기 살 집만 대리석으로 호화롭게 꾸미고 먹고사는 일에만 매달리는 백성들의 이기심과 무너진 우선순위를 책망하신 것이다.

3) 우선순위를 잃은 자들의 궁허함 학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흠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하셨다. 신대원 시절, 가난한 신학생들의 밥값을 대주기 위해 후원금을 식권통에 가득 채워 넣었지만, 아무리 채워도 다음 주면 어김없이 비어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십일조를 드렸기에, 평생 물결에 얹매어 쪼들려 본 적이 없고 넉넉하게 배풀며 살았다. 모든 여정의 핵심 키(Key)는 바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는 것도 아니다. 요한 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셨다. 무엇 보다 네 영혼의 소중함, 신앙의 가치를 가장 먼저 지켜내라. 그러면 나머지 육신적인 응답은 완벽하게 다 따라온다. 세상의 것들이 당장 만족과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헛된 것들이며 결국 내 인생에 지독한 저주와 불행만을 가져다준다.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성공은 결국 무서운 재앙이 될 뿐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영원한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왜 내 삶이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라고 당당하게 따지라. 그것이 진짜 기도이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완벽한 응답과 해답을 보여 주신다. 따지지도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문제다.

2.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과 언약

1) 복음의 우선순위를 회복한 자들에게 주신 위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시면서도, 복음과 전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한 이들에게 위드(With), 임마누엘(Immanuel), 원니스(Oneness)의 완벽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한 이 보좌의 배경을 굳게 믿고 예수 안에서 '스스로 굳세어질 수' 있다. 학개 2장 4절에 "그러나 여호와야 이르노라 스룹바벨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바드 아들의 대제사장 여호수야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격려하신다.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무슨 뜻인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총독 스룹바벨야나 대제사장 여호수야 입장에서, 말 안 듣고 평계만 내는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때려지우고 싶었는가. 그러므로 날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새 힘을 얻지 않으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 결국 다 포기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책이기에 그 이면에는 어머니와 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야지 조급해질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신학학교 가고 사역을 할 때, 억지로 내 힘으로 앞서서 서둘러 올라오거나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문을 여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여러분, 제발 한발 앞서가지 마라. 친지 분간을 못 하고 앞서가다가 그 귀한 축복을 다 놓쳐 버린다. 그리고서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라며 불신앙의 평계를 만들어낸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문을 여실 때까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평생을 바칠 것처럼 충성되게 집중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맨날 마음이 동동 떠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할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만 하면, 마치 나무의 뿌리를 여기 뽑았다 저기 뽑았다 하는 것과 같아서 평생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 진짜 몇 천 번, 몇 만 번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로 물어보라. "내 달란트가 너무 작아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핑계 대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를 향해 예수님은 "오히려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셨다. "아직 때가 안 왔네. 나는 능력이 없네"는 것은 다 변명이다.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화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리면 내가 마땅히 네 돈을 취하여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러게서 그 한 달란트를 취하여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고 명하셨다.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돈인지 아는가. 당시 1달란트는 금 34kg에 해당하며, 지금 가치로 무려 65억에서 7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 큰돈을 은행에라도 넣어두지 않고 땅에 파묻어 버렸으니 당연히 욕을 먹고 쫓겨날 만하다.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작은 달란트라서 못 하겠다고 핑계 대지 마라. 여러분이 아주 작은 달란트 하나만 쥐고 있어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2) 두려워하지 말라 학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약속하셨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데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며, 나의 직장, 사업, 전도, 선교, 교회를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일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나도 세계 곳곳에 RUTC를 세우고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 3월에는 삿포로에서 스키캠 프를 하려고 지금부터 열심히 스키를 배우고 있다.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삿포로에 가도 눈 구경만 하다 와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라.

3)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시공간 초월의 축복 성전을 재건하고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성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진 동시키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학개 2장 6절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금만 복음으로 바꾸고, 진심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전도와 세계 복음화, 선교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 보라. 많은 헌금을 하지 못하더라도 중심을 다 해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서해 보라.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학개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라고 하셨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르고 승리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하는데, 좌파니 우파니, 남북 갈등이니 하며 편을 가르면 되겠 는가. 운동선수들이 평소엔 소속팀에서 피 터지게 경쟁하지만, 국가대표로 뛸 때는 하나로 똘똘 뭉쳐 패스를 돌려야 승리 하는 법이다. 우리 5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려내야 하는데, 경성도가 어찌고 전라도가 어찌고 하며 다투어서야 되겠는가. 공산당 체제는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저들은 쳐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전쟁이 나도 30분, 1시간이면 끝난다는 것을 자기들이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통일을 이 루고 전 세계를 살리는 큰 그림을 그리며,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강력한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한다. 세상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은 오직 '복음'과 '선교' 밖에 없다. "중국이 싫다, 일본이 밉다, 미국 이 싫다"고 원만만 하면 어떻게 그 나라들에 복음을 전하겠는가. 우리가 복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237개국 5천 종족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번 WRC에 70개국에서 온 램넌트들을 보니 까만 피부도 하얗고 예쁘게 보일 만큼 다 귀여웠다.

4) 237개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37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로 이 성전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냐하면 은도 금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잔머리가 아 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학개 2장 7절에서 8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내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선포하셨다.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이 그 거대한 일본을 무려 1,000억 불이나 앞질렀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 고 여러 인프라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긴 것이다.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불닭볶음면 같은 K-푸드까지 세계 를 휩쓸며 엄청난 부를 끌어모으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수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린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다니엘 한 사람, 요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면 온 나라를 살렸다. 아가 직접 쓴 기도문을 낭독한 일곱 살짜리 꼬마 램넌트 한 명이면 민족을 살려낸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각자가 그 시대를 살릴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

여러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란 다. 혹시 운동이나 공부 등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된 사역과 일이 있다면, 오늘 다시 도전하고 재건하라. 뿐만 아니라 학 개 선지자처럼, 세상 것에만 빠져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일깨우는 강력한 영적인 선동꾼이요 선지자 의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 먼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 토록 함께하실 것이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영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키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램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 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걸 010-8206-2024	합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장)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현 여준석 감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근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중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정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희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위싱턴) ⑳ 이응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㉓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